

현대중공업, 현대오일 인수하겠다!

IPIC에게 지분 70% 전량 매입권 행사 통지 ... 중재재판 신청도 병행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인수 의사를 표명했다.

현대중공업은 3월25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IPIC에게 현대오일뱅크 주식 전량(70%)에 대한 주식매입권리(Deemed Offer) 행사를 통지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가 현대중공업 등 옛 현대계열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통지된 주식매입권리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의 2대 주주(19.8%)인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나아가 현대중공업은 “주식매입에 대해 IPIC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관정으로 확정돼야 진행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IPIC의 계약 위반 및 주식매입권 행사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법적분쟁 중재를 신청한 상태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IPIC가 현대오일뱅크 지분 처분과 관련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적 분쟁(legal dispute)을 제기했으며, 나아가 IPIC측이 GS그룹과 주식 양수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GS칼텍스를 비롯한 GS그룹 3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25>